

스스로의 판단



이 건 표
(유일농원)

수록 태산이라더니 지금의 산란업계의 형편이 꼭 그렇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거의 생산비 이하 수준에서 형성돼 온 난가가 1년이 넘어도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보통 길어야 3, 4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되곤 하던 난가 주기가 수면 이하에서 그 깊이를 더해 가면서 옆으로만 평행선만 그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생산과잉이다.

문제는 생산비 이하의 난가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 생산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모두들 의아해만 하고 있는데 있다.

언젠가는 생산이 줄어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한 난가 전망은 하늘에 그 운명을 맡길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이 엄청나게 과잉된 상태로 유례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배경에는 지난 IMF때 강제 퇴출되어 비워진 시설에 신계가 일시에 편입되어 그 동안 도태할 노계가 별로 없었고, 생산을 줄이고 싶어도 모두가 부채 비율이 높아 소신껏 생산조절을 자율적으로 단행할 수 없는 처지가 또한 그 문제이다. 우리 나라 전체 산란계 시설에 닦이 꽉 차면 지금의 소비 수준으로 보아 약 20%이상의 생산과잉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우리 산란업계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불황의 배경일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산란 농가들은 생산이 줄어들고 난가가 회복되어 지금까지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기만을 막연히 기대하며 빛만 늘려가고 있는 무대책의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다.

이제 생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수억 또는 수십억의 빛을 들여 시설해 놓은 초대형 계사를 비워둘 경우는 다시 IMF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자율적인 선택을 기대하기는 무리한 예상이다. 하기야 앞으로 얼마 안 있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또한 쉽게 예상이 되지만 말이다.

불황이 회복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갈수록 가정용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정주부가 절실히 계란을 살 필요가 없어져서 자연히 여타의 가정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과잉 생산된 계란이 땅 속으로 버려지지 않았다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가격으로 가공용, 군납용, 복한용 등으로 억지로 없애지고 있다.

제값을 받는 고정적인 가정용 소비가 늘어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난가가 계속되는 세 번째 이유는 유통의 큰 변화에 있다. 지금 가정용 소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옛날의 봉고차량이나 조그만 구멍가게 슈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이다. 그곳은 우리나라 굴지의 가전 제품을 비롯한 소비형 공업제품이나 가공식품들도 무차별 저가 공세판매를 생존전략으로 하고 있는 곳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먹을 것이 없어 귀하기만 하던
옛날의 계란 대접을 그리워만 하며
지금의 천덕꾸러기 푸대접을 푸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규모의 자금과 우수한 첨단 인력을 동원해서 이익을 내려면 많이 팔아야하고 많이 팔려면 싸게 팔아야하고 싸게 팔려면 싸게 구입을 구입해야 한다.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생산농가가 있다. 그 곳에서 싸게 싸게 파는 마지막 불똥이 생산자에게 떨어지게 되어가는 구조이다.

예전의 동네 구멍가게나 아파트 단지 내 슈퍼에서의 계란은 구색상품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골고루 팔아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구입 가격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형 할인 매장에서 계란은 고객 유인용 전략상품이 되고 있다. 계란같은 과잉 생산물이나 천덕꾸러기 상품을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통구조하에서 우리 계란이 옛날의 가격으로 대접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생산농가가 절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생산능력이나 소비증가나 유통구조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할 것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생산농가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지 오로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양계**